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2em; margin: 0;">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7년 5월 26일(금) (음력 5월 1일) Пятница 26 мая 2017 г. № 20(11673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25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전 제9중학교)에서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다. 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이번에 이 학교를 11학년생 25명이 졸업한다. 학교수업이 끝났지만 이들을 졸업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이예식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주, <마지막 종소리>행사 펼쳐져

5월 24일, 25일, 26일 사할린주내 163개의 학교들에서 <마지막 종소리> 졸업행사들이 펼쳐졌다. 이번에 <마지막 종소리>에 학교 졸업생 7000여 명(11학년 졸업생 2300명, 9학년 졸업생 4800명)이 종을 울린다.

<마지막 종소리>졸업행사가 실시되는 3일간은 사할린주에서는 몇 년째 행해지는 <무알콜의 날>로서 알코올 판매가 금지된다. 이는 2013년에 사할린주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5월 26일, 제3회 KYDO의 사할린 공연 개최

이미 홍보한 바와 같이 5월 26일(금) 오후 7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톨리차>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KYDO)의 지준유 지휘자를 비롯한 학생 27명이 사할린주청소년오케스트라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오케스트라와 제 3회 합동연주회를 가진다. 이들은 프로코피예브, 바르토크, 하차투란, 모차르트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 마지막 순서의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모든 3 오케스트라와 함께 사할린예술전문대학의 합창단(60명)도 함께 출연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아침 주정부에서는 주문화부 소속 문화예술연구센터가 키도와 교류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키도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농어촌 희망재단 심윤중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오케스트라 포함 43명)이 24일 사할린을 방문했다. 같은 날 한국대표단이 코르사코프 방향의 언덕을 찾아 위문공연을 했다. 사할린에 오기 전에 키도는 5월 23일 연해주 우수리이스크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가졌다.

제7회 <사할린 키티-메포디엡스키 독서> 컨퍼런스 개최

5월 21-25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7회 <사할린 키티-메포지 독서: 인노켄치(웨니아민노브)사제 220주년 탄생 기념> 학술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전례대로 사할린주정부, 러시아 정교회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교구, 사할린국립대가 주최해왔다. 사할린 지역에서 올해의 독서로 깊은 영적인 인격을 지녔던 인노켄치의 작품이 올랐다. 이번 포럼은 1917년 혁명 이후 100년과 그의 가르침이 주요 주제이다. 컨퍼런스에는 각 교육기관의 교사들, 도서관의 사서, 성직자, 대학생 등 발표자 중에 블라디보스토크, 로스토브, 모스크바에서 초청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23일 주행정부 대강당에서 발표가 진행되었다.

컨퍼런스는 주제 발표, 섹션 활동, 특강, 주일학교에서 교회홀라브이 수업 등으로 이루어졌고 대학생들의 토론의 장을 열 소논문 주제로는 <현대 가족>, <21세기의 기독교의 현실>이 주어졌다. 또한 <영적세계의 아름다움>이란 국제 콩쿠르 지역단계의 우승자와 수상자에게 시상식이 이루어졌고 독서 포럼의 일환으로 유명 기독교 작가이자 사회평론가인 아르테미 블라디미로브가 사할린을 방문하여 23일 사할린 국립대에서 작가의 작품설명회도 열렸다.

사할린주, 새 소아병원 공사 2018년 시작

지난 23일(화) 사할린주정부 회의에서 2017-2025년간 사할린주 보건분야시설 공사 계획안을 심의했다.

사할린주보건부 박 알렉세이 장관에 따르면 2017년에 사할린에서 산모들을 대상으로한 주산기 센터를 준공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와 연계되어 한 교대에 100명의 환자 진료상담소를 포함하여 400병석의 주 아동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박 장관은 건축시행 계획시기는 2018-2021년을 계획하고 건축비용은 대략 40억 루블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아동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간 부족이다. 병원 6개 병동 중에서 어느 한 병동도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병원 한 동에 설 계상 원래 100병석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200병석이 배치되어 있는 실태이다. 게다가 수술실은 2개밖에 없어서 환자가 수술계획에 따라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의사들 또한 부적합한 공간에서 집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주산기 센터 개관 후 2018-2020년에는 주 산부인과 병원을 개건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아과 진료소도 개설할 계획이다. 건축비용은 2억 루블리를 예상하고 있다.

1965년에 준공된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 응급진료소 건물은 일부 파괴되고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교통문제도 있는 관계로 새 응급진료소 건설이 시급하다. 새 응급진료소 건설 계획시기는 2018-2022년으로 총 공사비용은 4억4000만 루블리를 예상한다고 보건부 장관은 보고했다. 주병원의 새 외과 건물 공사(41억5000만루블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안쿠지노브 병원의 의료시설(7억5000만루블리) 공사 계획은 2020-2025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박 장관은 임상병리시설들 개건의 시급함을 보고하고 주 내에 새로운 소진료소와 조산원 건설, 그리고 코르사코브과 포로나이스크에 구역병원의 전염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전염병관리센터, 정신병원의 건설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사할린주, 여름 야영들에서 3만여 명의 학생들 휴양

지난 23일(화) 사할린 및 쿠릴 학생 3만여 명이 휴양소와 야영지에서 여름을 보낼 예정이라고 사할린주교육부 엘레나 바비나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5000명이 더 늘어난 수이다.

2017년에 학생들의 휴식과 건강회복으로 주예산에서 약 5억4800만 루블리가 배당되었다. 이번 여름 시즌에 사할린주에서는 316개소 야영소를 마련했는데 그중 6개소는 상설 시외곽 휴양소, 150개소는 일일 야영장, 38개소는 노동, 휴식야영, 28개는 야영캠 프 등이다.

여름야영 신청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사할린 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야영을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총비용에서 15%만(6천-8천 루블리) 지불하면 된다. 바비나 차관에 따르면 현재 극동지역에서 학생들의 야영 비용에 대한 혜택은 사할린주에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휴양, 야영을 이용할 수 있다 했다. 야영에서 휴식할 학생 3만여 명 중 30%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다.

올 여름에 크렘반도와 세워스토폴리의 재활휴양 기관들에 학생 500명이 떠난다. 이들은 교육, 스포츠, 예술 분야에서 수상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들로서 그중 150명은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다.

그 외에 재능있고, 활동적인 150명의 학생들은 전국아동센터 <오케안>, <오를료노크>, <스메나>와 <아르테크>에서 휴양을 하게 된다.

(본사기자)

<h2 style="font-size: 1.5em;">새고려신문</h2>	<h2 style="font-size: 1.5em;">2017년 하반기 구독</h2>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하반기(7-12월)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사 편집부)</p>		

노래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데뷰트>이미지보컬스튜디오 단장 이리나 마카렌코

필자는 이번 기사 주인공인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데뷰트(첫 등장)>이미지보컬스튜디오 단장 이리나 마카렌코를 2014년 3월 말에 처음 만났다. 그녀는 당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던 현 드미트리외의 장애인을 위한 자선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공연 주최자 중 하나로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여러 가수들과 함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포 젊은이를 돕고자 했다. 나는 그때 이리나가 타인에 대한 배려도 크고,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에도 열정적임을 느꼈다.

그 이후 이리나는 당시 주한인회 회장으로 있던 임윤근 씨를 찾아 한인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에스ตรา다 보컬을 가르치고 싶으면서 연습실을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 사실 제가 에스ตรา다보컬 교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주한인회였어요. 아버지가 한인이었어요. 한 핏줄이란 생각이 들어서인지, 한인들과 많이 접촉했기 때문인지, 어쨌든 저는 가장 먼저 주한인회를 찾았어요. 임 회장님이 거절하지 않고 제 제안을 받아주셨어요.

주한인회는 연습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리나는 수강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스튜디오의 청소년들은 한인문화센터 소속으로 문화센터를 대표해 출연 활동을 하기로 했다.

보컬스튜디오의 제대로된 활동을 위해 한인문화센터 측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분은 고 김 블라지미르 텐기로위츠 음악감독이었다.

이리나의 원래 전공은 에스ตรา다보컬 교사다. 이르쿠츠크전문예술학교를 졸업한 그녀의 졸업장에는 에스ตรา다보컬 교사, 예술단 지도자 자격이 주어졌다고 쓰여져 있다. 그러나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보컬교사로는 활동하지 않았었다.

사할린 홈스크에서 태어난 이리나는 어린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하는 소녀였다고 한다. 그녀의 타고난 노래실력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고 말한다. 러시아인 어머니와 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4살 때 처음 무대에 섰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유즈노사할린스크사범전문학교 음악과에서 두 분 다 공부하셔서 노래를 잘 하셨다고 그녀는 회상한다. 그러나 4남매 중 이리나만이 부모님을 따라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가수로 늘 일해왔고 현재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스무살에 결혼하고 딸들을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 둘째 딸을 낳기 전까지 홈스크에서 한 8년 동안 일반학교 음악교사, 그리고 학생활동 담당으로 활동도 했지만 음악교사는 전문 보컬 교사와 전혀 다르다고 한다.



지금은 노래를 할 수 있고 노래를 가르칠 수 있어서 이리나는 행복하다고 말한다.

- 제가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보컬을 안 가르친 이유는 전문학교를 졸업 후 아직 젊어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큰 딸도 스무살 넘고 둘째도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이제는 자유시간도 더 많이 주어지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첫째,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둘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선생은 각자 아이들에게 그들을 대하는 접근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청년기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은 각각 다 달라요. 음악, 보컬을 익히는 속도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과정과 방법도 다르거든요.

이리나의 가장 알려진 제자는 11세의 폴리나 랍추크이다.

이리나는 폴리나를 <데뷰트>스튜디오를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폴리나의 어머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리나를 찾았고 노래 콩쿠르 출전을 앞둔 폴리나를 보컬 연습을 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연습 후 주 노래콩쿠르에 참가하여 폴리나가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

폴리나가 이리나 선생의 마음에 들자 폴리나는 어머니의 동의 아래 계속 음악과 노래를 배우며 이미지보컬스튜디오에서 활동하기로 했다. 이후 카리즈마가 있는 폴리

나는 여러 콩쿨과 공연에 참가해왔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3가지 대규모 콩쿠르에도 폴리나는 이리나 선생과 함께 출전했었다. 첫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살류트 탈란토브(비바 재능)>(2015)국제대회로 7-10세 솔로 부문에서 2등을 차지하고 그 외에 심사위원회로부터 연기상도 받았다. 다음 모스크바 국제콩쿨에서도 수상했고 2016년 8월에는 사할린에서 진행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의 예선에서 폴리나는 우수상과 함께 서울 본선 참가권까지 획득했었다. 그리고 2016년에 서울에서 펼쳐진 전국노래자랑 본선에서 마침내 폴리나는 인기상을 따냈다. 모든 출전에 폴리나와 함께 해온 이리나는 어린 제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이리나는 폴리나에 대해 "폴리나의 장점은 착하고 낙천적이고 아직까지는 콩쿠르의 출전 참가자들을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순수한 아이다."라고 한다. 폴리나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여러 콩쿠르에 참가하고 수상하기도 했다. 코츠마료와 울리야, 톨스토노고와 (김)레기나 대학생 등도 이리나 선생의 말을 잘 따르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리나는 각 사람, 각 가수에게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음색, 이미지가 있으므로 스튜디오를 '이미지보컬스튜디오'로 부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튜디오에 다니는 청년들 중에는 그룹으로 노래를 하는 청년들도 있다. 솔로로서는 실력이 좀 부족해도 함께 다양한 음색의 목소리를 합치면 무엇보다 아름다운 화음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이 청년 대다수는 이리나가 강의를 나가는 사할린국립대 사범전문대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이리나가 스튜디오에서 보컬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져 입소문을 따라 학생들이 찾아온다. 처음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컬교육과정을 가르치려던 생각이 바뀌어 노래를 좋아하는 영재를 찾아 재능을 키우는 것이 그의 꿈이 되었다.

사할린 음악, 특히 보컬과 관련한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이리나는 여러 가창 콩쿠르의 심사위원 요청을 받기도 하고 직접 주최자로 나서기도 한다.

4월 초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그의 바쁜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그녀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에 빠졌다. 올해 <아이의 미소>자선폰드가 제2회 <사할린의 진주>콩쿠르를 공시했다. 이 콩쿠르 시작에서 노래 부분을 맡은 이리나는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콩쿠르의 대

상자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어려운 생활여건에 처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이 콩쿠르는 그저 콩쿠르가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는 한 달 동안 아이들은 말도 타보며 여러 교육과정을 익히게 된다고 했다. 이것이 콩쿠르의 파트너들이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다. 콩쿠르에서 어린이들은 주로 노래, 또는 연기 무대를 가진다. 이번 콩쿠르에서는 사회복지센터, 복지시설 등 어린이 18명이 참가하는데 16명의 무대를 바로 이리나가 담당해야 했다. 각 어린이에게 어울리는 노래,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율동이나 춤, 완벽한 무대를 연출하는 것이다. 물론 많은 연습시간이 필요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얻는 것도 많았다. 그동안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특히 장애로 제한된 것이 많은 아이들이 뭔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에 이리나는 정말 행복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사할린의 진주>축제 참가자들이 한인문화센터 소속 '이미지보컬스튜디오'에서 무료로 보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주한인회가 주는 선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주한인회와의 공감은 좋은 일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발이 넓은 이리나는 그와 다른 프로젝트들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그랜드 레온>레스토랑, 시문화관리국과 함께 아마추어 가수와 전문가수를 위한 <노래하는 도시>란 프로젝트도 추진한 바 있었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이와 같은 콩쿠르를 계속하자는 요청도 쇄도한다고 한다.

9월 부터 <데뷰트> 이미지보컬스튜디오는 노래를 배울 새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리나는 혹시 다들 어지길 기다리는 보석 같은 재능을 지닌 어린 가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설레며 기대한다고 했다.

일에 열정적인 이리나는 어릴 적에 읽은 왈렌틴 카웨린 작가의 책 <두 선장>에서 주인공의 슬로건 <싸우고 찾자, 찾아서 포기하지 말자>란 말을 좋아한다고 한다.

책임감이 높은 그녀는 시작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항상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바운티 홀>레스토랑에서 가수 겸 아티팩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리나는 생각이 많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누리며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 말한다.

(배순신기자)

(사진: 제자 폴리나와 함께. 이리나 마카렌코 제공)

이모저모

사할린 대학생들, <러시아 대학생의 봄> 축제에 출전

전국 85개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생 3000여 명이 톨라에서 진행된 제25회 전국 재능청년지원 콩쿠르 <러시아 대학생 봄>에 출전했다.

축제는 10개의 공연장에서 진행된 가운데 <지역 프로그램>, <언론>, <독창적인 장르>, <서커스>, 음악, 댄스, 연극 부문에서 우승자들이 선정되었다.

사할린을 사할린국립대, 공과전문대, 유즈노사할린스크사범전문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콜레즈와 사할린철도대학의 대학생들이 대표했다. 대표단은 33명으로 구성되어 모두가 전국 페스티벌 지역 단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댄스부문의 <길거리 댄스, 프리스타일(솔로)>로 사할린 대학생 마리나 뒤스키나가 2위를 차지했고 <음악>부문별 <비트박스>부문에서 <비트박스(듀엣)>으로 막심 카르푸신과 세르게이 위쵸브가 3위를 차지했다.

댄스 부문에서 <길거리 댄스, 프리스타일(양상블)>로 <트위이 고로드(:너의 도시)>무용단이 3위를 차지했다.

제25회 <2017 러시아 대학생의 봄> 전국축제의 최종 갈라-공연은 모스크바 국립 크레믈린궁전에서 개최되었다.

갈라공연은 다음 26회 <대학생의 봄> 축제의 진행 장소를 발표하면서 마무리되었고 다음 행사는 스타브로폴리 지역으로 결정되었다.

사할린학생들의 축전 참가비용은 사할린주스포츠 청소년정책부, 사할린국립대와 공과전문대학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청소년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успешно выступили на "Российской студенческой весне"

Более 3 тысяч студентов из 85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финале 25-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оддержки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Россий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Туле.

Фестиваль прошел на 10 сценических площадках. Победители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в номинациях: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Журналистика", "Оригинальный жанр", "Цирк", музыкальное, танцевальное, театра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ляли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а также СахИЖТ. Всего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33 человека. Все они являются побед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В номинации "Уличные танцы. Фристайл" (соло) направление "Танцевальное" сахалинка Марина Дыскина стала второй.

В номинации "Битбокс" направления "Музыкальное" — наш дуэт "Битбокс" — Максим Карпушин и Сергей Вожков — получил третье место.

Треть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Уличные танцы. Фристайл" (ансамбли) направления "Танцевальное" — получил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Твой город".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в номинации "Видеорепортаж" направления "Журналистика" заслужили Артём Будылев и Мария Кондиус.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SOVA24.

Завершающий гала-концерт XXV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Россий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 2017" состоялся в Москв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ремлевском дворце.

В завершение гала-концерта был объявлен регион, который примет следующую "Российскую студенческую весну". Им стал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

(8면에 계속)

주명수 화백, 고향인 코르사코브에서 개인전 열어

지난 19일(금) 코르사코브 역사향토박물관에서 <박물관의 밤>전국행사의 일환으로 주명수 러시아 명예 화가의 전시회가 열렸다. 개막식과 함께 주명수 화백과의 만남이 있었다.

사할린을 빛낸 주화가의 고향은 코르사코브이다. 그의 작품 중에는 망향의 언덕을 비롯하여 코르사코브시의 여러 곳이 그려져 있다.

70세를 바라보는 동포화가 이번엔 코르사코브 시민들에게 그림과 사진 20점을 소개했다. 전시회는 6월 16일까지 열릴 전망이다.

이날 개막식을 찾은 코르사코브구역 알렉산드르 루다코브 시장과 코르사코브구역 한인사회단체 이태출(이태준)회장은 주명수 화백에게 따뜻한 축하와 인사를 보냈다.

(취재: 이예식 기자)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이번엔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왔다. 뭐니 뭐니 해도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 가운데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나는 그 시절 한인 2세대가 무엇을 가장 즐겨 먹었는지가 궁금하기도 했다.

김임순 - "코르사코프가 항구니까 물고기가 많이 나오지. 크랍(게) 같은 것은 우리 할아버지(남편)가 얘기들한테 얼마나 많이 먹여 왔는지, 이제 개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한문형 - "어부들이 잡은 것 중에 백프로 성한 거 빼고, 다리 부러지고 그런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술 받아먹는단 말이야. 그때 쌀 포대 백킬로 짜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담으면 열댓 마리씩 들어갔지. 그럼 밖에서 강통에다 삶아가지고, 한 사흘에 한 번씩은 동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질려서 그런지 우리 아들은 크랍 안 먹어."

"한인들은 천불나는 일 많이 겪었지"

춤추다 눈 맞은 김임순 씨와 4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한문형 씨는, 처음에는 사진사를 하다가 그 후 자동차회사, 조선회사 등에서 일을 했고 한동안은 버스 공장도 다녔다고 한다. 김임순 씨 역시 몇십 년간 바느질을 하며 남편과 함께 억척스럽게 가게를 꾸려 나갔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는지, 있다면 무엇이었던지 여쭙었다.

한문형 - "차별? 당연히 있었지. 후르시초프 때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일단 (민족) 핵교도 없애고 사할린 조선인들한테는 높은 일(자리)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

빠스포프트(공민증)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한문형 - "상관이 없었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해 봐서 아는데, 러시아 사람은 일을 좀 못해도 대가리 쓰다듬지만 조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예 일을 못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보다 한 배 반, 아니 두 배 정도는 일을 더 해야 그 직장에 붙어서 일할 수 있었어요. 하, 그런 세월을 30년이나 지냈으니..."

한인에 대한 차별이 워낙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에, 일을 러시아인보다 열심히 해도 그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 어려웠다. 이에 대해 한문형 선생은 당신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억울하게 여긴 일이 무엇이었던지 털어놓았다.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인보다 일을 두 배 정도 하면 돈은 그만큼 더 준단 말이요. 그런데 돈 말고 휴가가 있거든. 3년 휴가도 있고 2년 휴가도 있고. 회사가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뭐 좋은 데 공짜로 보내주고 그랬어.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해도 그런 데를 한 번 못 간단 말이야. 다 마우제(러시아인)들이 가져가 불고, 우리에게 휴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나한테는) 그것이 아주 천불 나는 일이었지."

꿈에도 그리던 고향은 어디로 가고...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한문형 씨는 일본 회사에서 통역 일을 십 년 정도 하다가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였다. 어떤 마음으로 영주귀국을 결심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지가 궁금했다.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올 것을 결정하셨나요?

- "고향 간다는 거, 그것뿐이었지 뭐. 사할린에서 한국 간다고 들은 게 1945년도부터였으니. 밭에서 일하면서도 라디오 방송 듣고 만날 그랬다고. 그런데 막상 여기 와보니깐 그렇지도 않거든. 우리가 거기서 생각하던 고향이 아니야. 고향이 없어져버렸어."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르던가요?

- "하... 우리는 (거기서) 아주 옛날식으로 살았거든.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깐 너무 앞으로 나갔어요. 서로 친척도 몰라. 한국에 와보니 친척을 모르고 사는 게 영. 또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 우리가 지금 아파트 살잖아. 야는 사람만 인사해. 러시아에서는 아파트 안 살아서 이런 걸 몰랐단 말이야. 거기서 우리는 누구한테 무슨 일 있다 하면 막 달려갔어요. 유즈노(유즈노사할린스크)도 가고 우글레(우글레고르스크)도 가고. 사돈의 팔촌만 돼도 차 타고 가서 잔치하고 초상도 치르고, 굳은 일은 특별히 더 쫓아다니고 그랬다고. 거기서는 서로 조선 사람들이 그리우니깐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살 거지."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김임순 여사도 한마디 보탠다.

"다들 한국에 나와버리고 나니깐(영주귀국하니), 이제 사할린 가도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보고 손녀들이나 보고 오는 거지. 남은 사람들만 참 불쌍하게 됐어요. 자식을 두고 올 수도 없고. 하여간 일이 그 모양이니깐 우리도 한쪽으로는 좋지만 한쪽으로는 답답하고 그래. 10년은 잘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선 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세요?

김임순 -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저 아침 먹고 청소하고 이리저리 하다 복지관에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사할린 아주머니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헤어지면 집에 들어와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러다 저녁 해먹고 그렇지 뭐."

경로당도 한국 분들과 같이 쓰시나요?

김임순 - "경로당에 가면 통화가 안 돼. 암만해도 우리는 우리 자라던 습관이 있고 한국 분들은 한국 분들 자라던 습관이 있으니까. 말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하여간 무엇이든지 달라서 대화하기가 복잡해. 우리는 일본말도 튀어나오고 다 튀어 나오잖아. 사할린 사람 만나면 노국말(러시아어)도 나오고 조선말도 나오고. 우리 말할 때 보면 막 바쁘니까, 그래서 복잡해."

(계속)

전 세계 한인정치인 한자리에...

제5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

29일부터 5일간 서울 및 제주서 개최, 11개국 37명 한인정치인 참가
제12회 제주포럼과 연계해 평화 통일과 글로벌 한인공동체 기여 방안 논의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한인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이하 재단)은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서울 플라자호텔과 제주 히든클리프에서 '제5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쉐디 류, 美 하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 동포 재단이 후원하는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거주국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도모 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07년 처음 시작됐다.

- 그 동안 포럼에는 임용근 前 미 오리건주 상원의원, 김창준 前 미 연방하원의원, 신호범 前 미 워싱턴주 상원의원, 백진훈 일본 참의원 의원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이 참석했다.

올해 포럼에는 신디 류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과 번겨레 아르헨티나 문화부 차관보, 펠리사 리 뉴질랜드 국회의원, 텐 세르게이 러시아 연방 하원의원 등 11개국 37명의 한인 정치인이 참석해 현지 한인사회의 정치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올해 포럼은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7'과 연계해 재단 주관 세션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주제로 정치인 포럼 참가자들이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날인 29일에는 개회식과 환영 만찬이 진행되고, 주요 포럼은 이튿날부터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30일에 진행되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훈 인권대사가 '북핵 위기 대응과 대북정책'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지는 두번째 세션에서는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 쉐디 류 의원의 진행으로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내부회의가 열린다.

31일 진행되는 마지막 세션은 제주도로 자리를 옮겨 제주포럼과 연계해서 진행된다. 발비나 황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와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평화 통일과 글로벌 한인공동체의 기여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철기 이사장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동포들이 정치인으로 진출하면서 한인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한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며 "각국 정치인들이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다각도로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Помимо упомянутых сословий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х, крестьян, ремесленников и торговцев) в самом низу сословной пирамиды находилос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состоящие из нескольких групп, объединенных под общим названием «чхонмин». Группы были разнообразны и довольно пестры, объединяло их одно – они были наиболее бесправными и принижаемыми сословными группами в Корее средних веков.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и известной из этих групп были «ноби» – частные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репостные. Само слово «ноби» кита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 исторически оно обозначало рабов и рабынь. Однако в условиях Кореи частные ноби по своему статусу напоминали, скорее, российских крепостных, а не рабов в античном смысле этого слова. Часть ноби, наподобие русских дворовых, работала в господских усадьбах, обслуживая нужды своих владельцев (обычно – янбанов, но часто – и богатых простолюдинов), другая же часть была занята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платила своим владельцам оброк. Отсутствие надежной статистики не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о том, какую долю населения по стране составляли частные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репостные, но ясно, что в первые века династия Чосон эта доля была весьма заметной, по-видимому, что-то около 20–30 %. При этом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 на крепостных было во много ограничено. В частности, покупка и продажа ноби могла производиться только с разрешения офи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а за убийство крепостного хозяин подлежал наказанию.

Близки по положению к частным крепостным были и крепост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Значительная их часть состояла из obsługi различных учреждений, а также из лиц, занятых в презираемых род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первые столети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до XVI в., многие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оби являлись и подневольными ремесленниками, работавшими по официальным заказам.

Наконец, стату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репостных –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е образование – формально имели и многие куртизанки-кисэн, приписанные к тем или и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Эти «казенные кисэн» должны были всячески развлекать чиновников, а порою и служить им «временными женами» во время длительных командировок (институт «временных жен» из числа кисэн был особенно распространен среди офицеров в дальних гарнизонах).

Кроме крепостных, в состав «дешевых людей» входили и те, кто по наследству занимался тем или иным позорным ремеслом – мясники, кожевники, частные куртизанки.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подлому сословию» была наследственной. При этом считалось, что в состав этого сословия «можно войти, но нельзя выйти». Исключения из этого правила существовали, но были очень редки – например, крепостной мог получить права свободного простолюдина за совершенный в бою подвиг. Даже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женщина из этого сословия выходила замуж за простолюдина, ее дети все равно наследовали сословный статус матери, а не отца (закон был отменен в XVIII в.). Браки мужчин-ноби со свободными женщинами обычно запрещались, хотя на практике этот запрет не всегда соблюдался. Рожденный в таком браке ребенок также становился ноби. Низшее сословие пополнялось за счет преступников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а также за счет самораспродажи простолюдинов (такие сделки были вполне законными, хотя и требовали формального утверждения властям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ЧЕТВЕРТАЯ ВЛАСТЬ

Эту крылатую фразу относят к прессе и её влиянию в социуме. Считается, что журналисты обладают большой властью в обществе. Во все времена они добивались признания благодаря высокому уровню точности и беспристрастности, а также благодаря соблюдению ими правил честной игры.

Первой, второй и третьей властями являютс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ая, исполнительная и судебная ветви власти.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скорее, лирическое и отражает лишь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СМИ на общество. При этом СМИ не имеют реальной власти.

Но то, что журналисты стремятся владеть умами и сердцами читателей – это факт.

31 мая в Москв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ские медиа: история, настоящее, будущее».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журналисты и издатели корейских печатных и электронных СМИ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московских СМИ, С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юзов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и Москвы,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Гильдии этниче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члены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ученые-корееведы, студенты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отделений московских вузов, слу-

шатели 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Недел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Москв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амках Недели состоятся знакомства с творчеством мастеров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конференция журналистов приурочена к 20-летию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оздравления изданию направили редакц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ских газет, издаваемых в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е, Узбекистане и Кыргызстане. Для специального юбилейного выпуска газеты «РК»* наши коллеги подготовили дайджесты своих изданий, рассказывающие о профессии журналиста и самом важном происхождении на пространстве некогда одной страны – СССР.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май 2017 г.)

Сахалинский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КРУГЛЫЙ СТОЛ

Нац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инициативы

Круглый стол состоится в рамках XVI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проводимой под эгидо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НТОК,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КОФС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КАХАК» и «ТИНБО».

Дата: 16 июня 2017 г.

Время: 13:00 – 15:00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 72

Ведущий: Дин Ю.И., к.и.н., заведующая лабораторией изучения миграции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АНОО ВО СахГИТИ

План

Время	Имя докладчика	Название доклада
13:00–13:15	Дин Ю.И.	Нац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и факторы, влияющие на нее
13:15–13:20	Дискуссия и вопросы	
13:20–13:30	Тхай В.В., Тхай В.Д.	Трагедия депортации как часть историческ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13:30–13:45	Дискуссия и вопросы	
13:45–13:55	Ким И.А.	Идентичность корё сарам и роль родного языка
13:55–14:05	Дискуссия и вопросы	
14:05–14:15	Корнеева И.В.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4:15–14:35	Дискуссия и вопросы	
14:35–14:45	Пак Сун Ок	Анкетирование по проекту Обла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обществе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14:45–15:00	Дискуссия и вопросы	

Приглаш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рейцев,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нтеллигенции, науки, искусства и все,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историей, этнографией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ажными, дискуссионными вопросами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 - 476 руб. 28 коп.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Б ООН осудил очередно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акетное испытание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осудил очередное ракетное испытание, проведенное Пхеньяном. Во втором, по счёту с начала месяца, заявлении для печати, принятом 22 мая, члены Совбеза назвали поведение Пхеньяна «дестабилизирующим и вопиющим», потребовав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оведения ракетных и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Кроме того, члены Совбеза договорились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ситуацией и принять дальнейшие существенные меры, включая санкции, поскольку действия Пхеньяна усиливают напряжённость в регионе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Они заявили также о своём стремлении добиваться мир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итуации путём диалога.

Найдены новые останки жертв трагедии парома Сэволь

22 мая на третьей палубе парома «Сэволь», затонувшего в Жёлтом море 16 апреля 2014 года и недавно поднятого на сушу, обнаружены человеческие останки с надетым на них спасательным жилетом. По данным оперативного штаба, останки обнаружены в ходе работ по выемке ила в каюте по левому борту парома. Именно там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идели пропавшую без вести школьницу Ли Ён Сук. 19 мая были найдены останки другой жертвы трагедии Хо Да Юн, а чуть раньше в месте затопления парома «Сэволь» у острова Чиндо обнаружены фрагменты останков учителя физкультуры Ко Чхан Сока.

Спецпослан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К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Сон Ён Гиль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посланник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стретился в среду в Моск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ходе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южно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также трёхсторон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с участием двух Кореи и России. Сон Ён Гиль передал российскому лидеру письменное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в котором изложены напра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нов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заявил о недопустимости войн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чрезмерных санкций против Севера, от которых страдают простые северокорейцы. Он призвал реш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как в рамках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так и путём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В этой связи Сон Ён Гиль призвал Россию играть более активную роль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В отве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направить в Пхеньян сво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для изучения намерени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Стороны сошлись во мнении, что Пхеньян пойдёт по пути диалога при условии активизации трёхсторонн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еула, Москвы и Пхеньян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редложил, в частности, возобновить обсуждение проектов состыковк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 Транссибом и прокладки газопровода из России в РК. Он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июле в Гамбурге. Кроме того,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игласил Мун Чжэ Ин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в сентябр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Сеуле начался суд над экс-президентом РК Пак Кын Хе

23 мая в суде Центральн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Сеула начался судебный процесс над быв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Кын Хе. 10 марта она была отстранена от власти по решению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после чего ей были предъявлены обвинения по 18 пунктам, в том числе во взяточничестве,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властью и утечке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оцесс проходит в большом зале суда, где проходили судебные процессы над другими бывшими президент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он Ду Хваном и Ро Дэ У. Вместе с Пак Кын Хе среди подсудимых её близкая подруга Чхве Сун Силь и председатель Lotte Group Син Дон Бин. В первый день судебных слушаний Пак Кын Хе и Чхве Сун Силь допрашивали вместе, хотя защита экс-президента просила разделить их слушания. В ход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слушаний адвокаты Пак Кын Хе отрицали все выдвинутые против неё обвинения. Сама экс-президент 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слушаниях н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но её участие в основных слушаниях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Ожидается, что суд вынесет приговор до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содержания под стражей, то есть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месяцев после оглашения обвинитель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17 апреля. Судебные слуша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2-3 раза в неделю (RKI)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ОЛИМПИАДЫ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22 мая в СахГУ состоялось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Олимпиады СахГУ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том числе в этот день были оглашены итоги очного этапа «Олимпиады СахГУ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на тему: «Традиции уст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оходившего 28 апреля 2017 г.

В Олимпиаде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почти 110 школь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начиная от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Красногорска, Хомска, Корсакова и т.д.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могли выбрать либо тему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либо корейские пословицы.

К слову сказать,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88 чел.) выбрало тему сказок. И борьба за первые места была достаточно ожесточенная.

1 место -

Сунчугашева Л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гимназия 2, 7 класс)

2 место -

Жигенти Валерия (Холмск, лицей Надежда, 11 класс)

Манюрова Адели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гимназия 1, 6 класс)

3 место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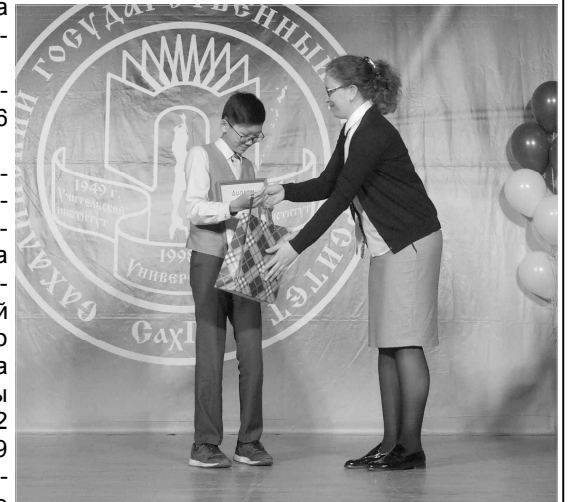
Корнева Окса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гимназия 1, 9 класс)

Янова Софь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Ш 30, 6 класс)

Победителем олимпиады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КОРЕЙСКИЕ ПОСЛОВИЦЫ с текстом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стал ученик 8 класса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янь Андрей.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ученицы корсаковской СОШ № 2 Колесникова Елена (9 класс) и Ермакова Полина (7 класс). Третье место разделили Со Ей Гир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8 класс) и Ефимова Арина (Корсаков, СОШ № 2, 9 класс).

С большим отрывом в олимпиаде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КОРЕЙСКИЕ ПОСЛОВИЦЫ с текстом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лидировала Ким Ксения, ученица 10 класса СОШ № 4 г. Корсаков. Она обогнала Ленинг Юлию, восьмиклассницу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актически на 9 баллов.

Напомним, чт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олимпиады является СахГУ со-



вместно с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этот день все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олимпиады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получили призы от РООСК.

Кстат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олимпиады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Творческой тетради по мотивам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где на последних страницах РООСК и СахГУ сообщаю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рисунков на тему «Сюжеты и герои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Объявление о конкурсе публикуется ниже.

Мы объявляем конкурс рисунков на тему

«Сюжеты и герои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Услови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никам необходимо нарисовать героев или эпизоды из сказок,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в книге-раскраске.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от 7 до 14 лет.

Возрастные категории: от 7 до 10 лет; от 11 до 14 лет.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ам:

- ✓ Соответствие содержания работы теме конкурса.
- ✓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эстетичность выполнения.
- ✓ Техника работ: рисунк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на конкурс, должн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формату А4 (210 x 290 мм), но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нены в любой технике рисования (масло, акварель, цветные карандаши и т. д.).
- ✓ Рисунки должны быть выполнены участнико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либо с незначительной помощью родителей или педагогов.
- ✓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может представить на конкурс не более одного рисунка.
- ✓ Оригиналы рисунков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 ✓ Коллективные работы не допускаются к участию в конкурсе.

Порядок оформления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 ✓ Заполнить и прислать заявку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до 01.07.2017 г. по адресу: KonkursKorea@mail.ru.
- ✓ Прислать работу до 1 октября 2017 г. по адресу: 6930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 Мира, 83 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октябре 2017 г.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ойдет выставка всех работ, присланных на конкурс.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зритель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будут отобраны лучшие рисунки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Жюри, исходя из критериев (соответствие тематике конкурса,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и эстетичность, качество выполнения работы) определит победителей. Результаты конкурса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31 октября 2017 г. Победители, призеры и участники награждаются дипломами и грамотами.

Время и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мы сообщим дополнительно! Лучшие работы станут основой календаря на 2018 год.

Торопитесь сделать незабываемый подарок для всех ваш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друзей – уникальный календарь с вашими рисунками по мотивам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Вопросы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обсужда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Заседание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делам каза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ладислав И.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азачьих обществ,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ойсковых частей.

Члены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обсудили проблемные вопрос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азачьих обществ с войсковыми частями и военным комиссариатом области по вопросам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и мобилизацио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граждан. Как отметил Владислав И., сахалинским казакам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 войсковых частей нужно более тщательно подходить к вопроса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Доводить до сведения друг друга данные о предстоящих (планируем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 которых возможно участие обеих сторон в целях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армейцев и допризывной молодежи.

Кроме того, на заседании речь шла также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по развитию казачь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школьников. Как сообщ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Елена Бабина,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казачь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 тр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сети объедин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традиции казачества;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 внеур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я и проведение с обучающимися воспит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традиции педагогики казаков.

-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работают 2 объедин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азачок» и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в этом учебном году работало 18 объедин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развитие традиций казачества,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ых было охвачено около 500 школьник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7 до 18 лет, - отметила она.

В повестку дня заседания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был включен также вопрос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казачьих обществ с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Российское движение школьников».

На горе Большевик высадили три тысячи молодых лиственниц

В акции, проведенной в рамках Года экологии, участвовало около 80 человек. К сотрудникам ряда областных ведомств и Южного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ности.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 восстановить лес на участках, где в 2015 и 2016 годах ураганы повалили тысячи деревьев. Ветровалы затронули и территории, входящие в состав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дготовка к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леса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заране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на склонах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проводились работы по расчистке ветровалов.

Перед посадкой сотрудник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вел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подробный инструктаж. Для многих из них стало открытием, что корешки саженцев нужно утаптывать ногами, не жалея сил. Деревца сажали на расстоянии 2,5 метра друг от друга. Три тысячи молодых лиственниц разместились на площади в полтора гектара. Поздне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ерят, как они прижились.

-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сей области мы запланировали в этом году провести лесопосадки, очистку захлапленных мест, а также закладку аллей, парков,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Надежда Изотова. - В школах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пройдут уроки и лекции на тему экологии

Ловить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будут с 15 июня по 31 августа

Такое решение на своем 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приняла регион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бычи анадромных видов рыб.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толий Макоедов.

Также по решению комисси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миграции нерки в Охотское море на рыбопромысловых участках у острова Шумшу лов с применением ставных сетей будет приостановлен с 15 июля по 15 августа.

Еще одно решение касается чавычи. Популяция этого вида лосося находится в депрессивном состоянии. Поэтому в текущем году добыча чавычи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й зоне и Камчатско-Курильской подзоне в границ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отраслевой науки запреще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предстоящую путину рыбакам Северных Курил предстоит добыть 1500 тонн горбуши, 1800 тонн кеты, 1750 тонн нерки и 500 тонн кижуч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риоритетная территория для компании «Мицуи Энд Ко., Лтд»

Такое заявление сделал Тосиаки Маруока, недавно занявший пост глав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яющего япон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в странах СНГ,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ООО «Мицуи Москоу». Произошло эт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митрием Нестеровым.

Приветствуя гостя, Дмитрий Нестеров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достигнутых в ходе встреч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 Компания «Мицуи Энд Ко., Лтд» - наш давний и надежный партнер,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мы реализовали много крупных и очень важных проектов,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 И мы наеемся на успешное продолжение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Россия - очень важная страна для компании «Мицуи Энд Ко., Лтд», - сказал Тосиаки Маруока. - 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риоритетная территория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вашей страной.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бсуд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дальнейше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Мицуи Энд Ко., Лтд» - (Mitsui & Co., Ltd.) - корпорация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она вед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фере торговли,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услуг. Она участвует в проектах по разведке и добыче нефти и газа на Среднем Востоке,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Океании,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е. В России компания является акционе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с долей участия 12,5 процента.

В декабре 2016 года в ходе официального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Японию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ицуи Энд Ко., Лтд». Корпорация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островными властями по вопросам разработки Мастер-плана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добываемого в регионе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Также компания имеет интересы в угольной отрасли, в добыче и переработке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бъектов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ереработки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читалась депутат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ервого года работы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нового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в рамк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ча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Якубич.

Свою практ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рпорация начала с января 2016 года. За время, прошедшее со дня начала работы Корпорации, поступило порядка 50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инициатив 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Ни одна из них не оставлена без внимания. Общая сумма предполагаемых инвестиций по проектам, одобренным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ставила более 70 млрд. руб. В том числе около 25 млрд. руб. - средства Корпорации, остальное инвестируют инициаторы проектов.

- Создание таких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как Корпорация крайне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На рынке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ситуация, при которой стандарты банков не позволяют кредитовать, например, проекты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скольку они имеют низкую доходность и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окупаемости. По этой же причине бизнес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вкладывает деньги в «длинные» проекты. Это мировая тенденция, 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развитие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 экономике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поддержки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И эта поддерж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утем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убсидий, налоговых льгот, то есть через устоявшиеся и извест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значение которых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 отметил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Андрей Якубич.

В 2016 году объ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роектов с участием Корпорации составил 5,4 млрд. руб.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вложил 4, 1 млрд. руб., инициаторы проектов и проектных компаний - 1,3 млрд. руб. Все финансируемые Корпорацией проекты предполагают длинный горизонт реализации. Формы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 участие в капитале операторов проекта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займов на возвратной и платной основе.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й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час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Нестеров подчеркнул:

- Деньги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тные и возвратные. Они вернутся в бюджет и будут вложены в новые социально-значимые проекты. Также нам важно, чтобы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ишли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передовой опыт.

За 2016 год чистая прибыль Корпорации составила 3,95 млрд. руб. Основные доходы получены по депозитам, размещенным в банках, учитывая начальную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стадию по реализуемым проектам. Налог на прибыль – 986 млн. руб. Дивиденды перечислены в бюджет области и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реализацию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У области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и мы создали эту Корпорацию.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ть хороший деловой климат, чтоб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оров. Однако даже с такой поддержкой у нас сегодня нет очереди за нашими деньгами.

Создание Корпорации позволяет нам привлекать в регион бизнес, создавать рабочие места 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то есть кроме нефтяных развивать проекты в други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И это надо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ть, - заявил, выступая в прениях, депутат Владимир Воронцов.

В областную адресную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рограмму вносятся изменения

Проект поправок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финансовой политик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ы Щербиной.

Поправки связаны, в частности, с увеличени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509,7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делен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ереселение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ого фонда. И около 1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федеральная казна направляет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главной областной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 дорог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Также в адресную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рограмму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ключены несколько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на общую сумму 928,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Работы по ним начнутся в текущем году. Часть из них –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в рамках плана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азвитию городов и сел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Это подземный водозабор в селе Никольском, центр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Шахтерске и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тадиона «Центральный» в Углегорске.

Также в списке новых объектов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конструкция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и схемы выдачи мощности в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продолжение газификации села Воскресенского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селе Ильин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дорог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Что касает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это газификация жилого района по улице Лесной, полигон твердых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поликлиники, которая разместится в южной части город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коллектора ливневой канализации по улице Пуркаева и объек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МЧС России.

Изменения в адрес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е будут утверждены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поправок в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текущего года.

За ход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следят учас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ого оперативного штаб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бъект, строящийся за счет федеральных и областных средств под контроле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готов на 93 процента,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дим Залозный.

В здании ведутся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монтаж вентиляционных систем, завершается отделка. Также строители приступили к сборке и установке мебели. Путно ведутся закупки и монтаж необходим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мебели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ых, 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кроватей и много другого.

В ходе возведения объекта строители столкнулись с массой проблем, вызванных в основном низким качеством подготовки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Приходилось часто приостанавливать работы, чтобы проектировщики могли устранить свои недоработки.

- Поэтому на объект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оперативный штаб, - рассказал Вадим Залозный. - В него вход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едомств, а также проек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 позволило ускорить получение необходимых согласований и проектных решений.

Согласно планам, в июле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После этого начнется процесс получения лицензии на оказание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По расчетам главы областного минздрава Алексея Пака, первых рожениц новый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примет осенью. По его мнению, это станет важной вехой в развитии медицины на островах. Перинатальный корпус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акушерский стационар на 100 коек, педиатрический - на 30 коек, а также консультативную поликлинику, рассчитанную на 25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блюдается увеличение рождаемости, поэтому объект нам крайне необходим, - 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Пак. - Здесь будет сосредоточено все само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сегодня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акушерстве, гинекологии и педиатрии. Мы сможем выхаживать малышей с экстремально низкой массой тела.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в центре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репродуктив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егодня многие жительницы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иметь детей в силу тех или иных причин, отправляются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чтобы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Это сложно и дорого. Поэтому со временем мы внедрим оказание этой услуги на Сахалине.

Также по сведениям Алексея Пака, готовятся к запуску нового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 медики. 130 врачей и специалистов среднего звен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десь работать, уже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학교학생 한국학 경시대회 결과 발표 · 시상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4월 28일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한민족의 얼이 담긴 전래동화와 속담>이란 주제로 사할린주 내 학생 중에서 한국학 경시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코르사코프, 홈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프,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 학교학생 약 110명이 참가했다.

지난 5월 22일(월) 사할린국립대에서 이에 관한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식은 사할린한국어교사협회 코르네예와 인나 사할린국립대 교수가 맡았다.

학생들은 두 주제 중(한국 전래동화 또는 속담)을 하나를 선택해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대다수(88명)는 전래동화를 택하여 이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1등은 순추가세와 리야(유즈노사할린스크 제2김나지아, 7학년), 2등은 지젠찌 알레리아(홈스크 <나제즈다>리체이, 11학년)와 마뉴로와 아멜리나(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김나지아, 6학년), 3등은 코르네와 옥사나(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김나지아, 9학년)와 야노와 소피야(유즈노사할린스크 제30중학교, 6학년)가 차지했다.

속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경쟁했다. 첫 그룹(11명) 학생들은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 속담에 대한 본문에 대답해야 했고,



두 번째 그룹(9명) 학생들은 한국어로 쓰여진 한국속담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다.

러시아어로 된 질문지에 가장 우수하게 장 안드레이(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8학년)가 답변하고, 2위는 코르사코프 제2중학교 9학년생인 콜레시니코와 엘레나와 같은 학교 7학년생인 예르마코와 폴리나, 3위는 서영길(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8학년)과 예피모와 아리나(코르사코프 제2중학교 9학년)가 차지했다.

한국어 속담 질문지에는 가장 정확하게 김 크세니아(코르사코프, 제4중학교 10학년)가

답하여 9점 차이로 2위인 레닌 그 울라(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8학년)를 앞섰다. 심사위원회는 3위는 안 주기로 했다.

한민족문화에 대한 경시대회는 전통적으로 사할린주한인회와 사할린국립대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경시대회 준비로 한국 전래동화를 주제로 한 색칠책을 받은 경시대회 참가자들에게는 주한인회와 사할린국립대가 주최하는 그림콩쿠르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콩쿠르에 대한 러시아어로 된 자세한 내용은 5면에 게재.

(취재: 배순신기자/글, 이에식기자/사진)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1

말하기 대회를 성공의 기회로 삼자

(전호의 계속)

2. 보기와 같이 '-(으)로 인해서(인하여)'를 사용하여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보기 학교 앞에 도로 공사 / 길이 많이 밀리다.

→ 학교 앞에 돌 공사로 인하여, 인해서 길이 많이 밀립니다.

(1) 작년에 심한 태풍 / 많은 피해를 보다.

→

(2) 한국은 인구 감소 / 많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보상 받았습니다.

→

(3) 요즈음에 도시 재개발 / 많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보상 받았습니다.

→

(4) 흡연 / 많은 사람들이 폐앞에 걸리다.

→

(5)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 / 죽은 사람은 총 몇 명인가요?

→

3. 보기와 같이 '-(으)로 따라서'나 '-냐에 따라서'를 사용하여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보기: 한국은 경기가 나빠지다 / 실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 한국은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서 실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1) 시대가 변하다 / 젊은이들의 취향도 변해가다.

→

(2) 나이를 먹다 / 체력도 쇠약해지고 있다.

→

(3) 어떤 직업을 선택하다 / 인생이 달라진다.

→

(4) 세월이 흐르다 / 인심도 바뀌기 마련이다.

→

(5) 어떤 마음먹다 /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

4. -(으)로 직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 어려운 이웃을 볼보는 일이 (바라다).

→

(2) 친구의 약혼자가 아주 (민다).

→

(3) 메뉴에 나온 음식이 (먹다).

→

(4) 그가 사표를 낸 것이 (사실이다).

→

(5) 내 앞에 앉은 그 사람은 네 나이 정도 (되다).

→

5. 보기와 같이 -(으)면 얼마나 -겠어요?'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이 물건이 비싸다.

→이 물건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1) 꼬마가 수박을 많이 먹는다.

→

(2) 그 식당에 손님이 많다.

→

(3) 오토바이가 빨리 달린다.

→

(4) 떡볶이가 매웠다.

→

(5) 그 사람이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안다.

→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재외동포재단, '2017년 CIS지역 전통문화예술인 초청연수 개최식'개최

러시아·CIS 고려인 대상 문화체험 및 전통문화예술연수(국악, 한국무용) 실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강사급 전통문화예술인 고려인 23명을 초청하여 '2017년 CIS지역 전통문화예술인 초청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5월 12일 10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식을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립남도국악원과 협력하여



2016년 러시아·CIS지역 동포예술인을 대상으로 한국무용·사물악기 연주 등 전통문화예술 실무교육과 한국체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동 연수를 서울 및 진도에서 진행한다.

연수 대상은 귀국 후 동료 및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예술을 전수할 수 있는 현직 예술단체의 강사급 예술인을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연수팀은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에서 초청된 23명으로, 약 30년간 무용강사로 활동한 시니어 강사에서 경력 5년 미만의 신입강사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

동 연수는 고려인 사회에 정통성 있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

아가 한류문화 보급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수 내용은 ▲ 전통문화예술 교육(국악 및 한국무용) ▲ 한국문화체험(고궁 체험, 전주 한옥마을 답사 및 한복체험, 국립중앙박물관 답사 등) ▲ 전통문화예술 공연 관람 ▲ 발표회(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문화예술 교육은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최동준 기획회사는 "정주 80주년을 맞는 해에 고려인들이 꾸준히 지켜온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연수를 실시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강사급 예술인들을 초청한 만큼 거주국에 돌아가서 우리 문화를 풍부히 계승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재외동포재단)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Поездка сахалинцев состоялась благодаря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а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 <자전거로 출근을> 전 러시아 활동에 응원을

<자전거로 출근을> 전국적 행사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들의 참가를 요망한다. 이 행사는 5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되며 5월 28일 하루 러시아 자전거 페어리드가 개최된다.

9만여 명이 소집되는 이같은 행사는 러시아연방 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후원으로 37개 도시에서 이미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올해 <자전거로 출근을> 활동에 처음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도 합류하게 된다.

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주중앙도시 몇몇 곳에 이동식 커피숍과 푸드트럭들이 배치되어 영업하게 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참가자들에게는 50%까지의 할인을 제공한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이러한 활동의 주요 목적은 자전거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체교통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환경상태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라는 점에 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체육스포츠관리국 엘레나 자바즈키나 국장은 강조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оддержать всероссийскую акцию "На работу на велосипеде"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На работу на велосипеде". Она пройдет 19 мая и 22 сентября, а 28 мая состоится единый день велопарадов Ро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РФ и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в 37 городах России проводятся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любителей велоспорта, которые собирают более 9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к акции "На работу на велосипеде" присоединится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дни акции в различ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несколько мобильных кофеен

и фудтраков (кафе на колесах), гд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продукцию со скидкой до 50 процент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 Основная цель акции — показать, что велосипед может быть не только эффективной и разум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альтернативой, но и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простых способов улучше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 городах. Кроме того, это отличный инструмент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физической формы,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лена Завязкина.

유즈노사할린스크 예술학교, 올해 300여 명 학생 졸업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 및 예술분야의 보충 교육기관들에서 올해 300여 명이 졸업하게 된다. 이들 모두 음악가, 화가, 무용가, 배우들로서 5월 19일부터 전 교육기관에서 졸업식 행사가 이뤄진다.

사할린주 형성과 같은 해에 (1947년) 설립된 보충교육기관으로서 중앙아동음악학교는 가장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한 가운데 5월 20일에는 42명의 졸업생들이 음악학교의 졸업장을 받았다. 그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18명의 학생들에게는 <졸업생>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의 전통 장학금을 수여했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보충교육기관학교 학생 시상상을 위해서 시예산으로부터 약 50만 루블리가 지급되었다.

Городские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в этом году окончат около 300 юных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ы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окончат около 300 человек. Это музыканты, художники, танцоры, актеры. Череда торжественных выпуск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 19 мая проходит во всех учреждениях.

Один из самых больших выпусков — в старейшем учреждении системы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весн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е (ЦДМШ). Документ о ее окончании 20 мая получили сразу 42 человека. 18 из них, добившиеся наи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за время учебы, удостоились традиционной стипендии мэ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пускник". В этом году на награждение учащихся городских школ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ощрительными премиями и стипендиями из ме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лено около полу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KOREA YOUNG DREAM ORCHESTRA Kyudo

приглашение



Третий совместный концерт молодёжного оркестра KYDO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Сахалинским детским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м камерным городским оркестром

2017년 제3회 KYDO 희망나눔 사할린 청소년교류 연주회 & 유즈노사할린시립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
В рамках общегородск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ная столица»

5. 26. 2017. Fri. 19:00
Конгресс холл «Столица»
유즈노사할린스크 비즈니스 센터

1949-1991 1991-2017 1991-2017 ASIANA AIRLINES 한국항공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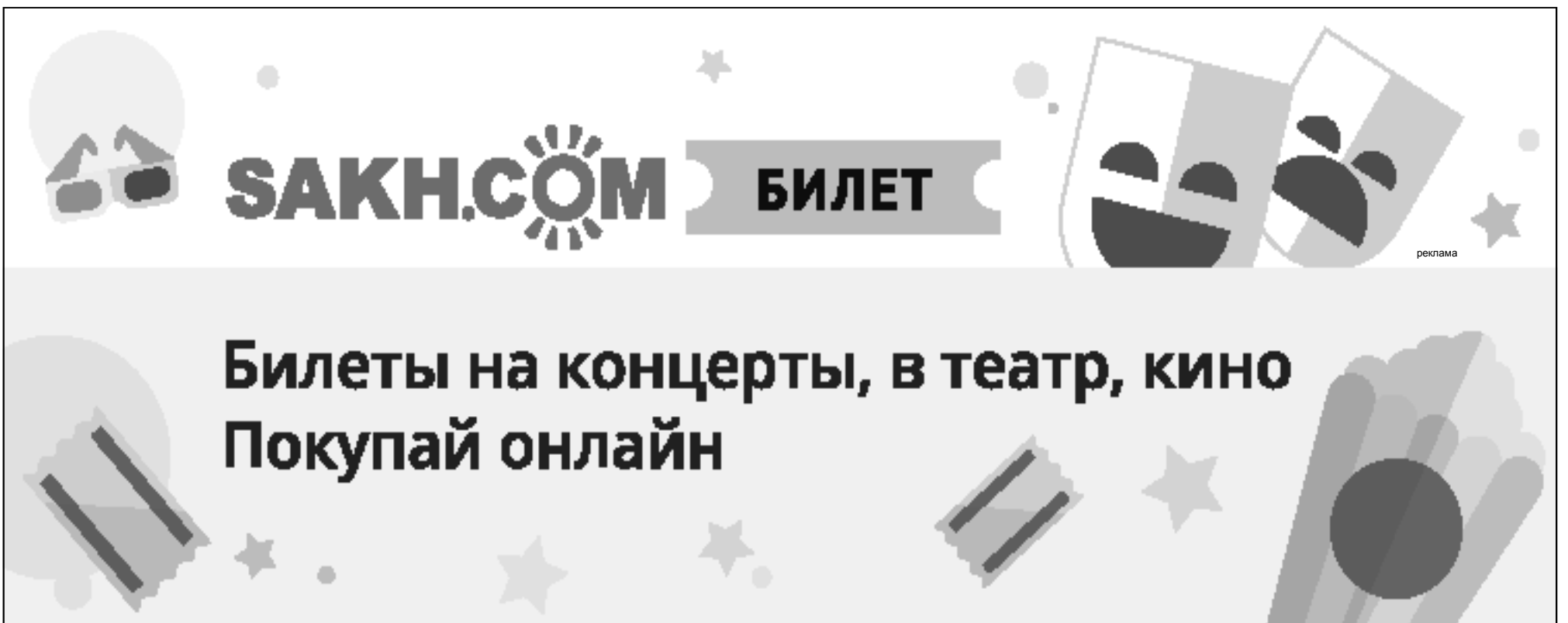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